

'기업에 희망을! 청년들에게 꿈을!'

중진공 - 전주비전대 청년창업 활성화 협약체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상직)과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3일 본교 대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 취업연계 및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날 협약식에는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홍순직 전주비전대 총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대학생 및 예비 청년 창업자들에 대한 창업지원 ▲대학생 현장 실습 및 체험활동 ▲중소벤처기업 인식개선 및 취업연계 ▲기업맞춤형 산학협력교육 ▲기술이전 및 산학공동 기술 개발 사업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중진공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와 전주비전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우수한 청년창업자를 발굴·육성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순직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전주비전대학교가 3일 '중소벤처기업 취업연계 및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내 우수 중소기업과의 산학협력에 더욱 매진할 것이며, 중진공에서 운영하는 청년사관학교 프로그램을 통한 창업 활성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2017년 취업률 74.1%, 2018년 136개 전문대학 중 취업률 6위(매경대학취업률), 2019년 2년 연속 중소기업부 경영 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취업과 창업지원 강소대학으로 자리매김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설동훈 교수 한국갤럽학술논문 '우수상'

전북대학교 설동훈 교수(사회대 사회학과)가 2019 한국갤럽학술논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상은 사회과학 전반과 통계학, 조사실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추천받아 사회조사 방법 분야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된 논문에 주어지는 상이다.

2003년 9월 첫 번째 시상식을 한 이래 올해로 열일곱번째 시상식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올해는 총 5편의 우수학술논문상 수상작이 선정됐다.

설 교수는 사회학과 고재훈·유승환 대학원생(박사과정)과 공동 집필한 논문인 '1964-2017년: 한국사회학회 발표 논문의 연구 분야별 내용분석'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연구는 1964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사회학회에서 출판·발표된 모든 논문의 텍스트 내용을 분석해 한국사회학의 연구 분야 변동 양상을 포착한 것이다. 한편, 시상식은 지난 5월 31일 열린 한국조사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진행됐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우수학교 탐방 나서

전북도교육청이 학교협동조합 활성화와 학교공간 이해를 위한 우수학교 현장 탐방에 나섰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협동조합 설립 준비학교 관계자와 교육지원청 놀이 담당자, 관심있는 교직원 및 학부모 등 40명을 대상으로 우수학교 현장 탐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문한 곳은 '서울창신초등학교'와 '선일이비즈니스고등학교'로 △학교협동조합 운영사례(교육과정) 공유 △학교협동조합 운영자 및 조합

원과의 만남 △놀이공간, 배움의 공간 탐방 및 학교공간개선 사례 공유 등이다.

먼저 서울창신초는 획일화·표준화된 기존의 학교 공간을 학생중심의 창의적·감성적 공간으로 탈바꿈한 곳이다.

놀이·독서·작품관 등 학생들의 자율공간인 '도담도담 쉼터 및 갤러리', 학교생활부적응 학생을 위한 '따따따실 및 상담실', 이상 기온에 대비한 실내놀이공간과 스트레스 해소 공간

등을 통해 학교 공간 혁신을 보여주고 있다. 또 선일이비즈니스고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직업 교육을 바탕으로 기업이 정신과 사회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지난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사업 모델은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교과목을 접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소풍물로 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협동조합 우수학교 견학 및 벤치마킹을 통해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노하우를 체득하고, 미래지향적 학교공간을 구상해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성교육 전문 강사 공개모집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성교육 전문 강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보건교사 미배치교 등 취약지역 학생들에게 내실있는 성교육과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또 표준화된 자료활용으로 성교육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선발예정 인원은 10명이며 계약기간

은 2019년 계약시부터 2019년 11월 계약 종료일까지다.

응시원서는 오는 10일 17시까지 도교육청 인성건강과로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우편 및 대리 접수는 받지 않는다.

1차 서류심사는 11일 실시하며, 12일에 합격자를 발표한다. 개인은 개별통보, 단체는 기관에 통보한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대, 초·중등 교사 창업역량강화 교육 실시

전북대학교 산학연구본부 창업교육센터와 LINC+사업단은 최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창업역량강화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창업역량강화 아카데미에서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초·중등 현장에서 쉽게 적용이 가능한 창업 교수법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고,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을 통해 청소년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및 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를 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교사들이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초·중등생의 창업교육의 필요성과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한 COIB교육 및 창업비즈니스모델 실습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창업 전문교육을 실습해 봄으로써 학생들에게 올바른 창업교육 적용 및 창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신을 위해 기획됐다.

유종수 교사(전주 영생고)는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창업에 대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학생들에게 창업아이디어 발상법,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 창업시뮬레이션 COIB등을 알릴 수 있는 알찬 교육이라고 생각한다"며, "학생 관심과 역량에 맞는 창업교육 프로그램이 교사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제공되어, 스티브잡스 같은 창의적인 학생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배준수 창업교육센터장은 "지역 교사 대상 창업교육 및 청소년 기업가 정신특강, 지역 청년창업가 지원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내 긍정적인 창업문화 조성과 선순환적인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고산초등학교가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꿈을 향한 '텀블링' 이뤄지다

고산초 체조부, 전국소년체육대회서 금메달 획득

한 시골 소년의 꿈을 향한 한창 '텀블링'이 드디어 이뤄졌다.

고산초등학교(교장 김지훈)는 제 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고산초 기계체조는 최근 6년간 선수층이 부족했지만 이번 금메달로 다시 한번 전북체조의 미래를 밝게 했다.

고전규(감독교사) 선생님은 2016년 고산초에 부임, 체조부를 창단 꿈나무들을 육성하고 있다.

더욱 뜻깊은 점은 이번 금메달을 획득한 이서미(6학년) 학생은 베트남 어머니를 둔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아이다.

고산초는 교육과정과 연계해 전

교생이 기본 체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기계체조는 다른 구기종목에 비해 대중들에게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시골학교 아이들에게 특별한 투자비용 없이 배울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고전규 선생님은 "고산초등학교 기계체조가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된 것은 전북교육청, 전북체육회, 전북체조협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그리고 지도자(윤상기)와 선수들이 휴일에도 묵묵히 땀 흘린 덕분이다"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